

한부모가족의 젠더 분석을 통한 성인지 정책 모색

한정원*
부산가톨릭대학교*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Policy through Gender Analysis of One-Parent Family

Jeong-Won Han *

Dept. of Aging and Social Work, Catholic Univ. of Pusan *

요 약 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부모가족, 성인지 관점, 젠더분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정책

Abstract One-parent family is increasing in Korea, changing its forms and identity. One-parent family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gender analysis, as men-headed family and women-headed family are in the very different situation regarding social status of gender. One-parent family policy needs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and also should be closely linked with child welfare policy and post-poverty strategies. This paper suggests distinguished situation of one-parent family by gender, and tries to explore specific ways of supporting one-parent family. Most of all, to set up the proper supporting system for one-parent family, the special needs and difficulties are analyzed by gender, which will lead towards the cohesive and holistic family policy.

Key Words : One-parent Family, Gender Perspective, Gender Analysis, On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One-parent Family Policies

1. 서론

한국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21세기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당면하였고 그 결과로 가족구조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가족의 다양성을 포괄하려는 사회인식변화와 정책적

* 본 논문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3 January 2014, Revised 5 February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Jeong-Won Han(Catholic Univ. of Pusan)
Email: jhan@cup.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정책 안에 함의되어 있는 젠더정체성이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매우 강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나 차별성을 갖는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유럽국가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 혹은 젠더분석을 시도하였고 최근에는 범국가적인 혹은 국가 간의 정책분석과 예산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상황을 보자면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핵가족은 전체 가족 구성에서 50%내외이지만 사회인식 안에 굳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경제적·사회적 지지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소위 정상가족이테올로기라고 부르는 핵가족중심의 사고는 정책의 세부 내용 안에 함의되어 있으면서 정책시행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급한 이유는 가족에 대한 정형성은 가족구성원을 물성적(gender-blinded)으로 접근하게 하고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애 주기적, 사회적, 경제적 차별성이 쉽게 간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사별, 이혼, 배우자로부터의 유기 및 배우자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한부가족이나 한모가족을 지칭하고 있으나 미혼가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여성까지 포함한다. 한부모가족 안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형성을 고려해 보자면 한부모가족의 형태별, 연령별, 생애주기별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한부모가족으로 지속되는 기간 및 빈곤발생요인과 빈곤누적기간의 차이, 탈빈곤 요인 및 가능성도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미혼모가족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른 것처럼 다양한 변인을 갖고 분석한다면 한부모가족의 대상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가족구조의 불안정과 함께 한부모 가구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망, 별거,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1995년 7.4%, 2000년

7.9%, 2005년 8.6%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한부모가족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빈곤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 한부모가구주에 비해 빈곤율이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여성 한부모가구가 빈곤에 더욱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은 2008년을 기준으로 15만 853가구이다. 또한 여성한부모가족은 11만 8천 가구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 중 약 80%에 해당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목적은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2]. 사업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내실화,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양육미혼모의 자립지원강화, 한부모가족지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위기상황의 취약가족에 대한 역량강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가족의 생활안정은 빈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빈곤한 상태에서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한국의 복지현황을 감안하자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현재 전체 한부모가족의 약 10%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젠더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빈곤원인과 사회지원서비스 욕구의 차별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현황을 연구내용으로 하며, 특히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논의의 장으로 펼쳐가면서 한부모가족정책을 젠더 분석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가족정책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

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젠더분석은 문헌분석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탈빈곤 및 생활안정,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한부모가족의 현황

2.1 한부모가족의 개념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망, 별거, 유기, 입원, 구속, 미혼모, 입양, 가출, 행방불명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父나 母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3].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One-parent Family, Lone-parent Family, Single-parent Family 및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이 중에서 one-parent family로 쓰는 경향이 우세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의 규정을 근간으로 한부모가족 발생원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4]

그러나 기존의 한부모를 일컫는 명칭들 즉, 편모, 편부, 편부모가족 등의 용어들이 결손, 부족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한국여성민우회와 가족과 성 상담소가 '한부모가족'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여기서 '한'은 하나로도 온전하고 가득하다는 의미로써 하나의 부 혹은 모만으로도 양부모가족과 똑같이 평등하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외에 보다 넓은 범주에서 한부모가족을 규정하면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는 세대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조부모의 능력과 손자녀의 연

령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5]. 또한 결혼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 가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미혼' 혹은 '비혼'여성까지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2.2 현황

한부모가족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양적인 팽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부모가족은 자체적으로 그 양상과 형태에 있어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혼제도 안과 밖에서 이혼과 사별, 미혼과 비혼 등 다양한 현상들이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연령이나 지역을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연령대에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나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현상적 사실들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Table 1>에 나와 있듯이 한부모가구의 경우 2000년 1,124천 가구이던 것이 2005년에는 1,370천 가구로 246천 가구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에 비해 21.9% 증가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우 동 비교기간 동안 조손가구 및 1세대가구와 함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족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 7.9%였던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8.6%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1> Structure of Household

		2000(year)		2005(year)	
Total		14,312	(100.0)	15,887	(100.0)
F a m i l y	· One-generation	2,034	(14.2)	2,575	(16.2)
	· Two-generation	8,696	(60.8)	8,807	(55.4)
	Couple+Children	6,892	(48.2)	6,702	(42.2)
	One parent family	1,124	(7.9)	1,370	(8.6)
	Grand-parent+Grand-children	45	(0.3)	58	(0.4)
	· Three-generation	1,176	(8.2)	1,093	(6.9)
	· Four-generaton	22	(0.2)	16	(0.1)
One person household		2,224	(15.5)	3,171	(20.0)
Non-relative household		159	(1.1)	226	(1.4)

National Statistics Office, populationSurvey'(2005)/www.bsi.go.kr

한편, 한부모가족 가구 중 여성 한부모가구와 남성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 분리통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남·여성 한부모가구의 절대적 증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한부모가구 중 각각의 성별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여성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남성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재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바뀌게 되면서 여성한부모의 재혼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한부모로 머무는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도 많다. 또한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 등 보살핌이 여성이 주책임자라는 인식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남성이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사례가 점차로 많이되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그동안의 여성 중심에서 이제 남성 또한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더더욱 젠더분석이 중요함을 알게해주는 부분이다.

2005년의 경우 한부모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남성 한부모가구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남성 한부모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생활 및 생애주기 또한 이에 따른 단계별 육구의 차이를 분석해 내는 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Table 2〉 One-parent Family by Gender

Year	Household	One-parent Family		
		Total	Women headed	Men headed
1985	9,571,361	847,796 (8.9)	-	-
1990	11,354,540	888,823 (7.8)	-	-
1995	12,958,181	959,972 (7.4)	787,574 (82.0)	172,398 (18.0)
2000	14,311,807	1,123,854 (7.9)	903,857 (80.4)	219,997 (19.6)
2005	15,887,128	1,369,943 (8.6)	1,083,020 (79.1)	286,923 (20.9)

National Statistics Office Population Survey(yearly)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 본 한부모가구의 경우 년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30대의 경우 약 20% 내외, 40대의 경우가 30% 내외, 50대의 경우 25% 내외, 60대의 경우가 15%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40대의 경우 1995년의 경우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약 32%에 달하던 비율이 10년 뒤인 2005년의 경우 3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 한부모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40대 중년층의 한부모가구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파탄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등으로 증가한 이혼가구의 영향을 다시금 보여주는 현상이다[6]. 또한 60세 이상의 경우도 아직은 비율이 낮은 추세이지만 남·여성 한부모가구 동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한부모가족 증가는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점차로 부각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의 경우, 노인인구 중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노인빈곤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통계를 종합하여 보자면 한부모 가족은 일정한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령별 육구분석도 필요하지만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젠더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One-parent Family by Age

Type Age	1995		2000		2005	
	Women headed	Men headed	Women headed	Men headed	Women headed	Men headed
Under 20	401 (0.05)	52 (0.3)	1,276 (0.1)	129 (0.06)	1,187 (0.1)	213 (0.1)
20~29	40,306 (5.2)	2,414 (1.5)	52,512 (5.8)	4,143 (1.9)	46,322 (4.3)	4,913 (1.7)
30~39	171,449 (22.0)	29,481 (18.1)	189,229 (20.9)	34,751 (15.8)	215,446 (19.9)	36,208 (12.6)
40~49	247,593 (31.8)	57,836 (35.5)	307,648 (34.0)	86,903 (39.5)	391,585 (36.2)	113,715 (39.6)
50~59	217,948 (28.0)	48,871 (30.0)	222,423 (24.6)	61,328 (27.9)	260,237 (24.0)	85,262 (29.7)
Over 60	101,395 (13.1)	24,137 (14.8)	130,769 (11.5)	32,743 (14.9)	168,243 (15.5)	46,612 (16.3)
Total	779,092 (100.0)	162,791 (100.0)	903,857 (100.0)	219,997 (100.0)	1,083,020 (100.0)	286,923 (100.0)

National Statistics Office, Household Report, yearly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부모가 한명 있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부모가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과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 등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한부모지원사업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적 목표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경제 위기로 인한 이혼으로 발생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젠더의 어느 한쪽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여성 한부모나 남성 한부모 모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한부모가 된 여성의 경우, 즉 사회의 경제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거나 혹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하여 경력에 단절된 여성인 경우 더더욱 탈빈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어떤 사회적 지원으로서도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과 한부모라고 하는 가족형태는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탈빈곤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고용불안 및 노인빈곤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현상과 같이 대부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여성 한부모가족임을 알 수 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을 벗어나는 것은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있다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부모가족으로의 변화는 기존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에서 멀어질 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저소득의 현상을 쉽게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절대적 수치는 여성 한부모에 비하여 적으나 남성 한부모가족 역시 지난 5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의 경우 2004년 대비 약 1.5배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어 남성 한부모가족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남성한부모는 여성에 비하여 경제적으로는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통계상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족의 삶의 질을 경제조건에 포함시킨다면 그다지 좋은 경제적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Table 4〉 Low-income One-parent Family

Year	Total		Women-headed		Men-headed	
	Household	People	Household	People	Household	People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75	23,995	65,091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2008	150,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2010 Introduction of On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2007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된 조손가구의 경우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적은 수치이나 조손가구가 가지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 및 보육과 교육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령의 조건과 가족의 발달단계상 이미 지나간 단계를 지속적으로 혹은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한부모가족에 비하여 더욱 힘든 내적 요소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덧붙이자면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중 시설보호 세대는 839세대로 소수만이 시설보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남성 한부모가정은 재가보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3. 논의

최근 가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떤 가족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차 그 형태가 다양화해지고 각각이 갖는 특수성이 부각되면서 더더욱 일반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은 그 양상이 다양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나타난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공통된 상황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건강 문제, 사회인식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의 해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과 중으로 인한 만성피로 누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존의 성별분업과 남성 생계자 부양방식,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자녀양육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심리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고,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아이들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보살핌 문제가 주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가구주의 성별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각기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다르므로 여기서는 여성 한부모가족과 남성 한부모가족을 구분하여 각 가족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풀어나가자 한다.

3.1 여성한부모의 특수성

3.1.1 경제적 문제

여성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경제적 문제인데, 이는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상황과 사회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여성이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여성의 임금은 대부분 남성보다 낮으며 일자리의 위치 또한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에 만연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인한 성별 역할 분담 등도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데 원인이 된다. 기존 가족의 생계를 남편이 책임져 왔다면 주된 생계부양자의 부재로 인한 가구소득원의 상실과 함께 성별고용차별, 임금격차, 불안정 고용 등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부실한 사회안전망 체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들은 미숙련·저소득의 직장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구주의 78.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9]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여서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빈곤율의 3배인 27.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또한 한모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시간 노동해야 할 경우가 많아 근로와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고,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자녀 양육비 문제 또한 한모가족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비 문제에 있어 저소득 여성한부모의 경우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일부 지원 받고 있는 공교육비까지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11]. 한부모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경우에도 아동 1명당 받는 교육보조금은 이러한 사교육비와 교복 및 교재 구입비 등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정책의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이혼 한부모의 자녀양육실태조사’에서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88.6%에 달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으로 가장 요구되는 항목으로 경제적 지원(65.4%)이 차지하고 있다[12].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강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여성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으며 저소득 임

시직이거나 일용직에 종사하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77.4%는 양부모가구에서 여성 한부모가구로 바뀔에 따라 경제적 소득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12]. 생계부양자였던 남편의 부재로 인하여 빈곤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소득이 절반으로 감소하거나 재산이 상실될 위기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옥선화 외[13]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 자녀양육, 교육 순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여성가장의 84%가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비의 30% 이상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어서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자녀의 학령기를 맞은 여성의 연령대에서 높은 수급자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후 감소하였다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누적빈곤지속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에서도[14] 남성은 경력년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여성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탈빈곤의 가능성이 적용되지 않음이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는 남성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소득보장의 수준도 매우 낮다. 그러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여성의 임금으로는 소득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태균·박효진의 연구에서도 여성 한부모가 남성 한부모에 비해서 탈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즉 여성가구주의 근로여부가 소득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와 상관없이 일하는 빈민을 양성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남성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탈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취업노동을 하더라도 미취업자와 유사한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나타났다[16].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성인지 분석 없이 같은 지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받는다는 것은 저소득 여성 한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와 자녀양육문제, 자기 개발을 통한 계층이전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주택문제, 의료문제 발생 시 건강의 문제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서 한모가족 지원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탈빈곤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1.2 편견과 차별

여성 한부모가 받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많은 부분 희석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국사회는 성별고정관념과 유교적 가치가 만연한 사회로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사별로 인한 여성한부모의 경우, 동정심이 동반되기는 하나 이혼으로 인한 여성한부모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연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은 한쪽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온전하지 못한 가족,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으로 낙인과 차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는 ‘한부모’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 ‘편모’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것을 보면 더욱 알 수 있다. 편모슬하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에 대한 사회적 비방과 편견, 이와 관련된 용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Table 5> Number of children(under age 18) at Divorce

year	Total	Number of children			
		None	1	2	Over 3
1995	68,279 (100.0)	19,545 (28.6)	22,463 (32.9)	22,490 (33.0)	3,781 (5.5)
2000	119,455 (100.0)	33,434 (28.0)	38,034 (31.8)	41,013 (34.3)	5,229 (4.4)
2005	128,035 (100.0)	45,414 (35.5)	34,976 (27.3)	40,227 (31.4)	5,997 (4.7)

National Statistics Office, Population Survey(yearly)

최근에는 이혼의 급격한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비도덕적 낙인과 함께 이중의 낙인 및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낙인으로 이러한 낙인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이들이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17]. 아래의 <Table 4>에서 나와 있듯이 미성년 자녀가 없이 이혼하는 경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1명 혹은 2명이상 있는 경우가 60%이상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자녀에 대한 사회적편견과 차별 문제와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정책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시각은 한부모가족의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서도 많은 단절을 경험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부모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특히나 어린 나이에 사회적 지지망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아동의 자아성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정부조차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하고 이혼 억제 및 방지 정책에 중점을 두는 동안 한부모가족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18].

3.1.3 자녀양육 문제

자녀양육과 관련해 여성한부모 가구주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면서 가사와 아동양육자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며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까지도 해야 됨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감이 크다.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에서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뚜렷한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을 한쪽이 다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고충이 매우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 중에서 한모 가구주는 아동양육비 부족 등 경제적 문제와 함께 시간부족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들 경제적 문제로 취업한 여성 한부모 가정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자녀에게 죄의식을 느끼거나[19] 반대로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더 나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보육시설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직장을 구하고 양육에 대한 부분적 부담을 책임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또 다른 심리사회적 문

제는 자녀의 부적응에 따른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들 수 있다. 부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양부모가족과 비교해 볼 때,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양부모가족의 자녀에 비해 다소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0].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사회적응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매우 많고, 양부모가족의 자녀와 비교해서 특별한 문제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화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양부모가족의 경우라도, 부모 중 어느 한쪽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거나 부모자녀세대 간의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한부모가족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적으로 이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단지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활동과 더불어서 사춘기 자녀 등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생활여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물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생활환경과 시간부족 및 의사소통의 충분한 이해 등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자녀양육문제, 남성 한부모가족과 여성 한부모가족 모두 어려움을 갖는 부분이지만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이상행동, 낮은 학업성취도,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3.1.4 정서적 문제

여성 한부모가정의 모는 자녀의 양육방식을 지지하고 의논해 줄 대상의 상실과, 가사와 육아 이외의 생계를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압박감과 긴장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남편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탱하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22]. 여성한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불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환경 등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나 여성 한부모가정의 모가 삶에 의욕을 갖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시기보다 더 나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 한부모가정의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가족의 구조적 결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 의지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3]. 즉, 이혼이나 사별 자체

가 여성한부모의 정서적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이혼이나 사별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와 만족도가 더 높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사에 있어서의 큰 사건을 겪은 이후 가족간의 애정과 결합이 더욱 돈독해 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남성한부모의 특수성

남성 한부모가족은 여성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와 자녀만이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한국의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 상 아내 혹은 어머니가 없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여성의 장소, 즉 남성이 참여하는 공적 영역과 분리되어 왔던 사적영역임을 감안한다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과 사회적 부담 또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한부모가족은 여성 한부모가족과 비교하여 나름의 젠더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회인식과 가족, 성별역할분담 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서 가족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이중부담은 남성 한부모가 겪어야 하는 젠더적 특수성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 가사 관리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3.2.1 경제적 문제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여성 한부모가족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24] 대다수의 부는 저학력과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이중부담을 저야 한다는 상황은 여성한부모와 비슷하나, 자녀양육 및 가사에 대한 미숙함과 과중한 부담은 남성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경력단절은 남성 한부모에게도 발행하며 경력단절 이후 안정된 직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통계상 남성 한부모가족의 부는 일반 가정에 비해 소득 및 직업 안정도는 매우 낮으며,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가사를 겸해야 하는 역할 가중으로 인해 불완전한 취업상태에 놓이거나 이직과 승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의 기업문화를 고려해 볼 때 잦은 야간근무와 장거리 출장 등 취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숙한 가계관리로 인해 생활비가 증가하고 보육시설 이용 등으로 양육비 지출도 증가하게 된다[25].

3.2.2 가사노동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성 한부모에 비하여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은 그동안 배우자에 의해 관리되어 왔던 가사 문제를 자신이 처리,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가족 안에 조부모와 같은 대리 관리자가 있으면 문제는 감소된다. 그러나 대리 관리자도 없고 자녀는 어리고 직업을 계속해야 할 경우 한부모가족의 부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 처하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가사노동 이외에 양육의 방법이 미숙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고, 이의 결과로 일정 정도의 가사노동을 자녀가 맡게 되면서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가사노동에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행하게 되는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자기만족도 또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즉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가치의 만연으로 인해 남녀의 성역할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남성 한부모가족에서의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사 관리의 문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는 직장 이동과 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 이것이 다시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26].

3.2.3 자녀양육문제

남성 한부모가족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의 문제다. 대부분의 남성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보살핌노동과 자녀양육방법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역할에 대해 성별분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한부모가 되기 전에 모가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부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관계로[27] 남성 한부모가족에서

모의 부재로 인한 부와 자녀와의 관계는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남성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을 하게 되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남성 한부모가족의 부가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여성 한부모가족과는 양상이 달라 실제적인 보살핌과 관련된 청소, 요리, 빨래, 자녀 머리손질 및 목욕시키기, 학교준비물 챙기기, 숙제 봐주기, 학교급식당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28].

이러한 남성 한부모가족에서의 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부적절한 대처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학교생활을 부적응, 방임과 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남성 한부모가족의 부가 딸을 양육하는 경우는 동일시할 수 있는 모가 부재하고, 부의 취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감독이 소홀해져 자녀를 방치하게 되고, 이러한 방치로 인해 자녀의 적절한 성장이 저해되기도 한다[29].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문제는 남성들의 유연하지 못하고 적절한 네트워크가 결여된 자녀양육 정보와 방법에 기인하기도 한다. 여기에 가사처리의 문제까지 중복되어 충분한 양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의한 스트레스를 한부모가 알코올 중독, 폭력 등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3.2.4 정서적 문제

한부모가족의 아버지도 여성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사별이나 이혼 이후에 정서적으로 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우울감, 실패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위축,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으며, 모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원 전체가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 기능상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30]. 즉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역할의 재구조화 및 재설정 문제에 직면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강한 부담, 생계부양에 대한 부담, 주변의 차별 섞인 시선 등으로 강한 스트레스 상태에 처하게 된다. 남성 한부모가족의 아버지가 처하는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사회의 왜곡된 인식 및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 한부모의 위축감과 두려움은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에 따라 다소 양상에 차이가 있는데 사별보다는 이혼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

아버지의 정서적 위축 외에도 자녀들의 정서적 위축

또한 문제가 된다. 남성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모성 부재로 인해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녀의 동일시 대상의 상실은 역할 수행의 혼란은 물론 사회적 위축감이라는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성 한부모가족의 여자 자녀의 경우 양친가족이나 여성 한부모가족에 비해 심리·정서적으로 더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3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젠더관점에서 분석하여 성인지정책으로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 성별에 따른 서비스 형태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욕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부모가족 정책이나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자면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에 있어서 여성한부모의 경우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나 가사 노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아동양육비(교육비)와 노동시장 진입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 남성 한부모가족은 실제 가사 노동과 정서적 교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 바우처를 제공할 때도 가사가 서툰 남성 한부모 가구에는 완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나 식재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가사지원도우미를 파견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 한부모가구에는 그 가구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정책은 젠더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효하며 한부모가족을 일반화하거나 획일화하여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안에서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 단절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성인지 분석을 통해 빈곤원인 및 정책의 효율성을 재검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빈곤정책에 함의되어 있는 젠더 정체성을 파악하여 이로 인하여 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예상

가능한 결과를 추이할 수 있어야 한다. 젠더 정체성은 비혼여성과 기혼여성, 연령이 낮은 여성과 높은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정체성 또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빈곤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성인지 분석함으로써 발생원인의 일반화와 일반적인 성별화를 회피하고 발전적인 젠더분석 방법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이 효율적인 예산분배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런 노력으로 빈곤정책에 대한 생애사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한부모가족 정책은 한부모가구의 성별, 연령, 학력, 생애주기적 발생시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근본적인 빈곤 탈피에 성공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fered fro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n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2010.
-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n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2010.
- [3] J. J. Koh, A Research on One-parent Family and Welfare Policies. Welfare Policies. Vol. 29, pp.277-302, 2004.
- [4]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Basic Research on One-parent Family, 1984.
- [5] S. K. Kim, A Research on One-parent Family's Life Stabilization and Child Support Syste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 [6] A. Kim, An Analysis of Women's Poverty since Economic Crisis. Korean Women's Studies, Vol. 25, No. 3, pp.71-107, 2009.
- [7] E. S. Hwang, A Comparative Study of Men-headed family and Women-headed family, One-parent

- Family Studies, Vol. 1, No. 1, pp.1-34.
- [8] S. Y. Park, Family-related Law System, KWDI Report, 2008.
- [9] M. S. Kim, M. K. Park et al. Low-income one-parent Families and Potential Policies. Korean Health and Society Research Report, 2000.
- [10] Korean Child Welfare Association, Specialization and Diverse Changes in Child Welfare Services. Korean Child Welfare Association Press, 2003.
- [11] S. H. Ok et al, Life of Poor Single Mother Since 1997. Korean Home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156, No. 3, pp. 121-135.
- [1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troduction of On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2010.
- [13] S. H. Ok, Support of Social Network of Single Mother Family. Korean Home Economics, Vol. 22, No. 1, pp. 181-191, 2003.
- [14] E. H. Kim, Important Impacts on post-poverty strategies of single-parent families. Social Welfare Policies, Vol. 36, No. 6, pp.239-268.
- [15] T. K. You & H. J. Park, A Comparative Studies of Men and Women in One-parent Families in terms of Post Poverty Strategies.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2, No. 1, pp.29-58, 2009.
- [16] J. Y. Yoh, Differences of Poverty of Men and Women in One-parent Famil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2003.
- [17] H. S. Cho et al, One-parent Families; Child care in Gender Differences, Family Welfare. HakJi Sa, 2006.
- [18] E. S. Hwang, Current Family Policies and Services for Single Mother. Seminar Collection, 2009.
- [19] Y. S. Choi,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for One-parent Families i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es, Vol. 20, pp. 1-15, 2005.
- [20] H. S. Cho et al, One-parent Families; Child care in Gender Differences, Family Welfare. HakJi Sa, 2006.
- [21] E. S. Hwang, Comparative Studies of Men-headed One-parent Families and Women-headed One-parent Families, One-parent Family Researches, Vol. 2, No. 1, pp. 1-20.
- [22] H. S. Cho et al, One-parent Families; Child care in Gender Differences, Family Welfare. HakJi Sa, 2006.
- [23] H. K. Chang, Social Support System for Single-mom. KWDI Research Report, 2011.
- [24] E. J. Koh & J. W. Kim, Poverty of One-parent Family,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2, pp. 219-236.
- [25] Y. S. Choi,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for One-parent Families i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es, Vol. 20, pp. 1-15, 2005.
- [26] H. S. Cho et al, One-parent Families; Child care in Gender Differences, Family Welfare. HakJi Sa, 2006.
- [27] H. S. Byun, H. Y. Kim et al, Changes of Social Status of Women after Divorce, KWDI Report, 2006.
- [28] E. S. Hwang, Social Support and Services for Single Mother. Seminar Collection, 2010.
- [29] S. Y. Cho, A Method of Child Care in One-parent Families. Korean Life Science, Vol. 12, No. 5, pp.579-593, 2003.
- [30] S. K. Kim, Support of Independence of One-parent Families, Unpublished thesis, 2010.
- [31] S. H. Oh, Family Function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One-parent Family. Korean Children's Welfare Seminar Collection, 2002.

한 정 원(Han, Jeong Won)



- 1991년 2월 : 서강대학교 (문학사)
- 1995년 2월 : Univ. of Sussex(여성 정책 석사)
- 2003년 2월 : Univ. of Sussex(여성 정책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복지, 노인복지
- E-Mail : jhan@cup.ac.kr